

법조인 이야기



정소연 변호사의
냉정과 열정 사이

망가진 세계와 싸우는 M세대 변호사

사회복지학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소설을 썼다. 번역을 하면서 고시공부를 했고 로스쿨에 입학해 치열한 경쟁에 몸담았다. 변호사가 되고선 밥벌이한 것 족족 후원과 공익활동에 갖다 바친다. '법대로' 말하는 차가운 철녀의 속이 왜 그리 뜨거운가. 차가운 분노로 세상에 맞장 뜨면서도 청순한 온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소연(39)은 국내 로스쿨 출신 1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다른 수식어로는 '공익변호사'가 있다. 동시에 과학소설 작가이자 번역가도 직업 중 하나다. 서울대학교에서 법대가 아닌 사회복지학과, 철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셈이니 이채로운 경력이다. 제2회 과학기술창작문예에서 만화 <우주류>로 가작을 수상했고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문학상에선 소설 <마산앞바다>로 가작을 받았다. 20대부터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재능을 선보인 그는 1983년생.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고참 격이니 M세대 변호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그에게 특별히 주목하게 된 것은 <우주류>나 <마산앞바다> 또는 이후 작품인 <U-ROBOT> 등 소설을 읽어서가 아니다. 지난해 연말 신간을 정리하다 발견한 에세이 한 권이 다리를 놓았다. <세계의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방법>(은행나무). 제목에 눈이 갔고 책을 펴는 순간 낯선 여변호사의 강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정소연은 공익 변호사라는 별칭답게 세상 구석구석 놓인 여러 공익에 좌표를 찍는다. 고상한 법조인이 되리라던 환상을 깬 '변호 비즈니스'에 묵묵히 순응하며 즐겁게 일한다. 그렇게 돈을 벌

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SF소설을 쓰고 번역을 하며 가난한 소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한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힘센 이들에게 밀려나 낭떠러지에 이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려 애쓴다. 법대로 말해야 하기에 투쟁의 언어 대신 변명의 언어만 늘어놓게 되는 자기 현실에 늘 미안해한다. 하지만 좌절과 실패가 있어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내가 알기 전 이미 헝클어진 세상과 맞장프고 있던 이 여결은 과연 누구인가. 칼 같고 차갑기만 한 사람 같지만, 정말 그랬다면 굳이 세계의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법을 궁리하진 않았을 터, 다른 뭔가가 있을 듯했다.

Q. 제목이 심상치 않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착안한 제목인가?

A. 호평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붙인 제목은 아니고 출판사 편집진이 고민 끝에 달아준 제목이다. 첫 제목은 그냥 '법원로 12길 10'이었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참 안 팔릴 제목이었다(웃음). 내 머리에선 더 좋은 게 안 나오니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 의견들을 모아서 투표로 결정했다.

Q. 세계의 악당은 누구인가?

A. 정소연이 미워하는 결정적인 빌런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다. 저만 살겠다는 사람. 뭔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량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사는 게 맞다고 본

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외면을 공공연히 유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악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Q. 그런 악당들에 대항하겠다는 뜻인가?

A.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다. 제목이 세계의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법이잖나. 저기 악당이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악당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세계의 일부분이다.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자는 의도도 있다. 나는 이 제목을 그렇게 이해했다.

Q.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뜻도 되겠다.

A. 맞긴 한데 그렇게 풀기엔 너무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다.

Q. 소설가, 번역가, 변호사, 장학사업, 노동상담, 팟캐스트까지 참 여러 일을 한다.

A.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 N잡러다. 글을 쓰고 변호사 일을 하니까 작가랑 변호사를 겸업하는 직업인인 건 맞다. 그 외의 활동은 직업이라고 하기엔 무리인 것 같고 파생 활동이 아닐까? 변호사 일은 생계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지만, 예를 들어 장학 프로그램 같은 건 사실 직업이 아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영역이니까. 노동 변호사로서 '직장갑질 119' 같은 단체 활동 하는 것도 사실 변호사 일 중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Q. 그렇게 열심히 일이다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그 모든 게 가능한가?

A. 좋아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거고, 하면 되더라.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어차피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 사무실에 변호사로서 출근을 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론만 쓰고 재판정만 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사이에 후원하는 장학생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칼럼도 쓰고 노동위원회 회의 있으면 참가하고 그런 식이다.

Q.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왜 하는 건가? 쉬면서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잠을 더 자든 해도 될 텐데.

A.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모든 일이 다 즐겁고 좋지는 않다. 변호사 일도 굉장히 만족하지만 이 일도 하다 보면 '진짜 이걸 하기 싫다'거나 '너무 힘들다'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며 사회의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았으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Q. 개인적인 욕구보다 의무감이 더 큰가 보다.

A.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운 것 같다. 물론 나도 개인적인 욕구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될 일을 늘 생각하게 된다.

Q.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A.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분들을 대신해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뿐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진다는 기분. 그게 동력이 되는 것 같다. '직장갑질 119'를 예로 들면 거기 진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 많은 이들이 고충을 토로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라면 큰 효용성은 없는 위로나 조언을 랜덤으로 할 뿐이다. 하지만 난 변호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즐겁고 책임감도 더 생긴다. 사회는 거대한 유기체다. 평범한 사람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내 능력이 합쳐지면 비로소 완전하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런 느낌,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다.

Q. 사회에 부채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

A.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다. 좀 편하게 살지 뭐 하러 그러냐고.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러냐고. 나도 어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웃음).

Q.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나?

A. 물론이다. 그럴 때 견디기 힘들어 했다. 뽕뽕이 추천으로 중학교에 갔는데,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의 외진 학교에 배정됐다. 마산 신시가 아파트촌에서 자란 내가 낯선 동네를 처음 접한 거였다.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하면서 엄마가 대학 졸업한 집은 손들라고 했는데, 반에서 나 하나만 들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 어머니는 대학원 졸업이었다. 충격이었다. 부모님뿐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어른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모든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닌데, 사회는 나에게 친절했다. 그

런데 이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냉정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더라. 이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전체가 바꾸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보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내가 더 운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그만큼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세상이 굴러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믿었다.

Q. 의식의 전개가 부럽다. 혼자 터득한 건가?

A. 부모님께서 ‘재는 어찌다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좋은 가정교육을 해주신 덕이 크다. 책도 많이 읽긴 했다. 만 열세 살에 ‘왜 우리 엄마만 대학을 나왔지?’라는 생각, ‘왜 우리 아빠 회사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다른 아빠들 회사는 모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부모님 덕이라고 본다. 뭐랄까, 항상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하셨던 것 같다. 뭐든 그냥 시키는 게 없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안 되면 천천히 설득하셨다. 예를 들어 무슨 일로 혼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고 어느 정도로 잘못된 것 같냐고 물었다. 3일 동안 만화영화 안 볼 만큼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그게 벌칙이 되는 거였다(웃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얻으려 할 때도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생각의 굴레를 발달시키는 훈련을 시켜준 셈이다. 부모님이 고등교육을 받으셨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인격과 철학의 문제다. 사실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되게 다르게 자랐을 것 같다. 운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자랄 때 가졌던 기회가 다른 이들에겐 없었다면 그들을 만날 때 내가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Q. 변호사라는 직업에 애환도 많을 텐데.

A. 가장 큰 것은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어려운 공부해서 변호사 된다고 했을 때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개인 사업자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시작해보면 안다.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개인 사업자다.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야가 확 트인 사람이 아니라서 힘들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애로점이다. 지방 재판부까지 여러 곳을 다녀야 하고 기다림의 시간도 길다. 앉아서 자료 찾고 읽고 글 쓰는 게 주라고 상상했는데 만날 돌아다녀야 한다. 여성 변호사라서 어려운 점은, 당연히 많다. 왜 그런지 짐작하시겠지만 책에 친절하게, 격하게 많이 써놓았다(웃음).

Q. 성 차별적 요소가 아직도 심한가?

A. 이제 법조계 자체는 머릿수로 봤을 때 성비가 맞는 상태가 됐으니 좀 덜하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서비스업은 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려면 아직 멀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로펌은 여변(여성 변호사)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여변이 일을 더 못해서가 아니라 의뢰인들이 나이 지긋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사 법정은 공판 검사와 재판장, 경위까지도 여성분이었다. 나는 여성이어서 그런지 몇 달을 드나들면서도 그게 특별해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 내 피고인이 여자만 있는 법정이 싫다고 했다. 다른 예도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일하는데, 성희롱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분을 심의할 때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였는데 이분한

테는 내가 여자라는 정보가 먼저 입력된 것 같았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경계심을 노출했다. 내가 남성 위원이어도 그랬을까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다.

Q. 과장된 나쁜 편견은 문제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나 선입견도 있지 않을까?

A.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필요 이상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주변에 있던 여변이 너무 많이 사라진다. 결혼과 임신, 육아 때문이다.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복직해도 거의 공공으로 진출하는 예가 많다. 구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 변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그런 자리에 지원하지 않으니 공공부문은 여성 변호사 일색이다. 역지로 맞아떨어진 이해관계의 구조가 공고화되는 거다. 더 큰 사건을 맡을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들도 그렇게 현실과 타협한다. 그러니 여변에 대한 편견이 또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Q. 임신과 출산, 육아 애기를 빼놓을 수 없다. 여성이 갖는 핸디캡의 본질 아닐까?

A. 본질적인 불평등이 거기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선의의 불평등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억울한 차별 없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차별은 개인의 태도보다 구조적인 문제다.

Q. 언제부턴가 젠더 갈등이 특히 심해졌다고 한다. 페미니즘 논란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왜 그럴까?

A. 지금 현상은 나도 못마땅하다. 구조적 차

별의 양태를 설명할 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누구한테 더 목소리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한데, 경로와 내용에 불평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난 '이대남'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냥 20대 남자라는 뜻 아닌가. 그걸 몇몇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어떤 지향으로 표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젠더 갈등이 아닌 그 외 다른 불만과 혐오를 젠더 쪽으로 몰아 표출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엔 뭔가 작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치권의 의도일 수도 있고 영악한 미디어의 장난일 수도 있다. 젠더 갈등이 있다면 그 본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 아젠다를 재건해야 하는데, 계급 갈등, 연령 갈등 등 온갖 것을 끌어다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주동하는 세력들이 합작하고 있는 것 같다.

Q. 차별금지법에 관심 많을 것 같다. 그 법은 지금 어디에 있나?

A. 안 되고 있다. 활동가들끼리 단식까지 해가며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 해결이 되길 바랐던 게 무리였다. 안 된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거대여당 국회이니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지만 반대세력이 많아 만만치 않다. 일단은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가 있고 종교에 대한 반대가 있고 연령에 대한 반대도 은근히 많다. 특정 지방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 나이가 많아서 또는 너무 어려서 고용하기 어렵다는 기업과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차별금지'를 놓고 대립한다.

Q.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된다.

A.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온갖 차별 관련 이슈가 생겨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솔직히 법은 선연성이 더 큰 것이라 갑자기 고용문제 등

에 큰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만 해도 법이 시행되고도 처벌 조항이 사용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도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시하는 선언적 차원이 강할 것 같다. 구체적인 것들은 안건이 생기고 케이스가 생겼을 때 하나씩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선언성이란 말은 좀 의아하다. 법은 법인 이상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처벌도 확실해야 하지 않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법이 무슨 소용인가?

A. 그런 점에서 나 역시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옳은 거니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만들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이걸 안 통하더라,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사후에 고쳐나가는 것이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경우다. 이게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법이 너무 험거워 실제로 하청업체 등을 거의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큰 신호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하나하나씩 케이스가 생겨나면서 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선으로 맞춰 나가게 될 거다.

Q. 사법 쪽이 답답하다는 생각 안 해봤나? 차라리 입법에 관여하는 건 어떤가?

A. 그래서 정치하러 가시는 변호사님들이 많다(웃음). 하지만 내 경우엔 정치가 유혹을 느낄 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 것 같다. 노출도 많이 되고 신경 써야 할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입법이 하고 싶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 법을 적용하는 사법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 시행령이나 규칙이라도 좀 고쳐주면 해결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다.

Q. 법정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양형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A. 심신미약, 주취, 반성 등 감형 사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듯하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뜻이다. 일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론의 과잉보도 영향일 듯하다. 양형 이유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다. 언론이 뭔가 관행적인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웬만한 경우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형이 확 깎이는 건 많은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이유다. 양형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없으면 사실 사람이 판결을 할 의미도 없다.

Q. ‘피해호소인’ 논란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 아닐까?

A. 원론적인 입장에서, 가해자를 벌주는 것으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회가 다른 방향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벌을 준 다음에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처벌의 고리를 너무 짧게 잡으면, 가해자를 충분히 처벌함으로써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을 준다. 피해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고민을 접고 면죄부처럼 엄벌을 작동시키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Q. 그럼 양형 이유가 부당하다고 공분하는 건, 대체로 착각이거나 잘못된 일인가?

A. 실제보다 확대돼 보이는 게 많다는 얘기가.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 않는 선에서 나온 판결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의외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비용 전가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예를 들어 오랫동안 수감됐다가 나오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고 그럴수록 더 열악한 지역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동네에 산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다. 비용이 조금 조금씩 전가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엄벌에 처해진 수감자들이 교화와 재활을 통해 안전 복귀하게 만드는 큰 그림까지 흐름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Q. ‘투쟁의 언어는 사라지고 변명의 언어만 늘어간다’고 썼다. 자괴감이 생길 땐 어떻게 극복하나?

A. 우리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지원하는 직업이다. 굉장히 많은 경우

에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이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싶은 회의가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분이 있다면 유가족들은 ‘이거 살인이다’, ‘저 직장 상사들이 죽인 거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변호사인 나는 ‘살인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사하는 변호사의 언어는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다. 법대로만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언어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인가’, ‘이렇게 해서 배상이 나온다 해도 이게 정말 원하는 결과인가’라는 느낌이 들어온다. 당사자의 언어와 점점 멀어진 내 자신에게 자괴감이 드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일을 잘해 결과를 냈다는 자부심으로 겨우 속을 달래는 것 같다.

Q. 노동변호사인데 공익위원이라 개별 수입은 못한다고 들었다. 손해가 클 텐데 왜 하나?

A. 서울노동위원회 일뿐 아니다. 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에서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원래 운동선수 인권 관련 수임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한다. 공공부문 일 들어갈 때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한다. 이걸 하면 요만큼의 비즈니스가 사라진다는 계산을 하지만, 결론은 늘 손해 보더라도 공익 쪽을 택한다.

Q.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0년간 100조를 털어 넣고도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A.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해서

다. 예를 들어 남녀 동등하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보장한다든지 남편 육휴를 의무화한다든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 형태의 변화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것 같다. 단순히 시설이나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생활 동반자, 반려인 등을 도입해 육아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Q. 본인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결혼 13년 차다.

A.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일하며 살다 보니 '내가 여기서 임신하면 이거 다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우려가 컸다. 물론 지금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는 게 제일 큰 이유다. 남편이 애를 각별히 원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어서 지금 상태가 딱 좋다. 솔직히 국가가 출산과 육아를 맡아주지 않는다면 그 기간 중 수입도 문제다. 결국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출산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비용 문제다.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아기를 갖고 싶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결혼도 출산도 손해니까 안 하는 거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은 거다.

Q. 영어, 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외국어 공부도 다양하다. 왜 이리 많이 했나?

A.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우수한 애긴지 모르지만,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에 '외국어 같아서'라고 생각했다. 할 줄 알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내겐 변호사가 됐다는 것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랑 같았다. 그래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Q. 법을 포함한 그 많은 외국어를 써먹으려면 여행을 자주 해야 할 텐데….

A.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답답하긴 하다. 일본어가 가장 편해 진짜 자주 다녔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여행 가는 꿈을 많이 꾸다.

Q. 빈곤국 장학생 지원 말고도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주로 소수자들을 돕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조금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장학 프로그램은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만 대상이다. 지방에서 자라면서 불우한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마음이 갔을 뿐이다. LGBT 같은 경우도 나 역시 성장과정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다.

Q. 변호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

A. 잠이 깰 때쯤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다. 일어나기 전에 따뜻하게 데운 안대를 눈에 올려준다. 아침을 차리고 나서 다시 나를 깨운다. 맛있게 밥을 먹고 출근해 열심히 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일하다가 필라테스 하러 간다. 마무리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저녁을 먹고 고양이와 놀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린다. 아이돌 동영상도 보기도 한다. 가끔 '다꾸'도 한다. 다이어리 꾸미기(웃음).

Q. 변호사 사무실 이름도 '보다', 장학프로그램도 '보다'라고 이름을 쓴다. 직접 만들었고 직접 사비로 운영한다고 들었다.

A. 보다는 본다는 뜻의 동사 '보다'도 되고 '보다 더 나아진다'는 뜻의 부사 '보다'이기도 하다. 만든 지 5년째라 대학 졸업한 친구도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여학생들을 후원한다. 학비와 생활비, 방학 때 고향에 갈 교통비까지 모두 지원한다. 글로벌 규모의 NGO에서 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지원자가 많으니 탈락자도 많다. 그런 아이들 중에 몇을 선정해 후원한다. 지금 16명이다. 연 2000만~3000만 원 들어간다. 뼈뺏하게 맞춰가느라 개인적으로 저축은 거의 못한다.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는 아니어서 힘들지만, 그만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계속하고 있다.

Q. 가족들은 동의했나?

A. 남편밖에 없으니 동의를 구할 일도 없다. 친정어머니가 '그냥 네가 버는 걸로 네가 좋은 거 해먹고 좋은 거 입고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 있다. 그런데 '엄마가 없고 아빠는 장애인이고 동생이 다섯이 있는 애한테 한 달에 200만 원만 보내면 대학도 졸업하고 준수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써야지, 어찌겠니' 그러신다(웃음).

Q. 국내 학생들 후원은 생각해보지 않았나?

A. 예전에 보육원에 여학생을 2년간 지원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다. 베트남 학생들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어쩔 수 없이 나의 만족감까지 고려해 그곳 학생을 선택하게 됐다.

Q. 20년 후 정소연은 어떤 모습일까?

A. 변호사는 평생 직업이니까 계속할 것 같기는 한데 소송을 현장에서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다. 기본적으로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지 않겠다. 청탁 들어오면 글 쓰고, 지금 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달라져 있지 않겠다. 아이들도 성인 되어 뭔가 일을 할 테고. 그들이 후배들을 위해 도울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소설가 김초엽은 그의 책 추천사에서 '차가운 분노'와 '온기'라는 표현을 썼다. 정소연의 글을 읽을 때면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고 했으며, 그의 글이 '잔잔히 차가운 분노를 품자고, 그러나 우리의 온기를 끝내 잃지는 말자고 말 건네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다지도 좋았다고.

나도 그렇다. 그를 만나고 돌아온 뒤 혼자만 잘 살아보려다 저만치 서먹해진 동맹군을 다시 만난 느낌, 크게 되는 일 없다 한들 작은 것 하나라도 쉽게 포기하진 말아야겠다는 다짐,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 있든 조금이라도 반짝이며 살자는 결심이 생겨난 듯하다.

(출처/ 여성조선)